

제5회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

= 육성기의 포인트 [양질조사료의 충분한 급여] =
생후 13개월령까지는 뼈나 내장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영양소의 배합이 중요하며 내장의 발달을 위하여 조사료의 다량급여가 필요

안녕하십니까?

구제역이란 불청객은 우리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 주었습니다. 애초 파주 젖소농가에서 발병후 홍성지역 한우농가에서 재발견되었을 때에는 모든 농가가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였으나 차츰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우개량”지에서 이미 구제역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지만 광범위한 전염성과 14일 정도의 잠복기와 바이러스균의 생존성 등에 따라 항상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제역 사태를 거울로 삼아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방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항상 청결한 축산업을 경영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국민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1. 거세시기와 비육

한우고급육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육 밀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비육밀소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자가 원하는 고급육이 나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밀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 되도록 육성기 때의 제한 급여, 거세 등의 사양을 하여야 합니다. 사양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거세입니다.

거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한 농가들의 경험에 따라 거세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적절한 거세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릅니다. 거세시기가 “빠를수록 좋다”와 “늦을수록 좋다”등의 서로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J는 7개월령(7두)과 17개월령(17두)에 거세한 비육시험과 비거세, 3개월령, 6개월령, 9개월령, 12개월령, 15개월령 등 5단계로 나누어 각각 5두씩 비육시험하여 보았었는데, 두 시험 모두 거세가 늦을수록 증체량이 많았으며, 육질등급은 모두 1



등급에 속했다는 것이다.

한편 B는 3~4개월령, 5~6개월령, 7~8개월령으로 나누어 거세비육시험을 하였는데 거세시기는 3~4개월령에 거세한 것이 제일 좋았으며, 거세시기와 관계없이 1등급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두 거세시험 결과와 외국의 거세시기에 대한 비육시험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거세시기가 육질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거세시기에 따른 증체량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조기거세보다 중기의 거세가 비육기간 통틀어 증체량이 높다고 하였다.

▶ 외국의 사례

○ 거세시기는 증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Champagne 등 1969)

○ 체중에 따른 거세시기(70, 230, 320, 410kg)에 따른 육량등급의 영향은 없었음(Wovrell, 1987)

○ 포유중과 이유중 거세에 대해서는 증체와 사료이용성에 차이가 없었고, 육질과 지육율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없었음(일본 육우사양표준, 1978)

○ 출생시보다 이유시 거세가 증체율이 좋았음(Landon, 1978)

○ 이유시의 거세보다 12개월령의 거세가 증체율이 좋았으며, 육질은 비슷하였음(Gregory, 1983)

2. 사료의 이용

한우고급육 생산에 있어 육성기에 양질조사료를 많이 급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 공판장 도착시 출하체중자격이 520kg으로 제4회 대회보다 20kg이나 높아졌으므로 지역적으로 장거리에 있는 영남,호남지방에서 출품하는 농가는 30~40kg이 높은 농장출발 체중550~560kg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번 대회는 조사료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일본에서 비육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료의 급여수준에 따라 출하체중이 80kg이나 차이가 있었다. 경남 B회원이 제주에서 성장한 증소를 매입하여 비육하면 출하체중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한 것은 제주지역 특성상 육성기에 농후사료보다 조사료의 급여량이 많기 때문에 내륙에 도입되어서는 고급육생산에서 강조하는 조사료의 다급에 맞아떨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초기에 조사료 위주로 사육하면 농후사료를 주로한 소에 비하여 성장둔화가 있지만 비육중기의

후반부터는 농후사료를 급여한 것보다 증체량이 높아진다. 이것을 “보상성장”, “대상성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고서는 출하체중을 가뿐히 넘기기 어려우리라 믿는다. 한우가격이 아무리 육질등급에 영향을 받는다해도 도체중이 낮다는 것은 사료효율이 낮았다는 것이고 그 만큼 손해를 입는다는 뜻이므로 우선 체중에 대한 신경을 곤두 세워야 할 것이다.

가. 조사료의 중요성

비육전기(육성기)에 조사료를 많이 급여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조사료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 1) 조강성(粗剛性)과 부피 때문에 소화기 전체를 충분히 발달시켜 장기비육에 견딜 수 있게 한다.
- 2) 체격(골격)을 우선적으로 발달시켜 대형우로 키울수 있게 한다.
- 3) 어릴 때부터 내장에 지방이 붙는 것을 방지하고 내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한다.
- 4) 침의 분비와 반추작용을 촉진하여 제1위의 발효상태를 양호하게 한다.

다시말하면 식욕증진, 건강유지, 보건 등의 역할을 한다.

▶ 사료 섞어주기

사료섞어주기란 사조에 들어있는 사료를 골고루 막대기나 손으로 섞어주는 것으로 아침저녁으로 사료급여후 3~4시간후에 사료를 섞어주면 소의 왕성한 호기심으로 사조에 몰려들어 다시 사료를 먹는다. [그림 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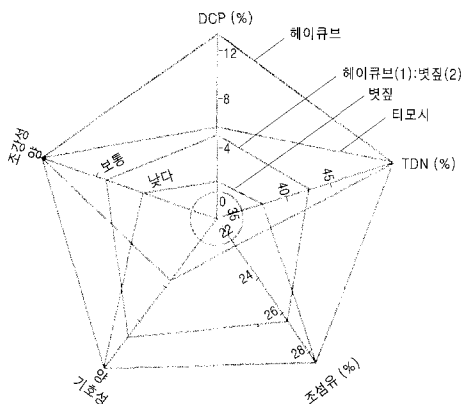


[그림 1]

나. 조사료의 혼합급여

일반적인 조사료에는 벣짚, 헤이큐브, 목건초, 알팔파 건초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조사료의 공급목적은 조섬유, 에너지(TDN), 조단백질(DCP),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적인 주공급이지만 물리적인 조강성이나 섭취량도 중요한 요소이다. 티머시, 오차드그래스 등은 영양적인 면과 물리적인 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사료라고 하지만 유통량이 적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싼편이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벣짚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조사료의 보완급여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헤이큐브와 볏짚을 1:2로 혼합하여 기호성, 조강성, 영양적인 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급여하고 있다. [그림 2] 참조



[그림 2] 조사료의 특징과 혼합

3. 비육 1개월째의 관리

가. 사료급여 방식

한우비육에 있어 생후 13~14개월령까지를 육성기라 하는 것처럼 이 기간은 소가 육성하는 단계라는 뜻으로 그 의미는 골격이나 장의 발달을 위해서 키운다는 뜻이다. 따라서 골격과 내장등의 발달에 필수적인 것이 다량의 양질 조사료의 급여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사료만 급여하고 농후사료는 급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사료로서는 필요한 양

분을 전체공급하기란 어려우므로 농후사료의 급여량은 제한급여를 실시하고 조사료는 차라리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주의할 점은 무제한으로 급여한다고 한몫에 너무 많은 조사료를 급여하면 사료통 밖으로 조사료가 넘쳐서 아까운 조사료만 낭비하게 되므로 아침저녁으로 나누어주어 사료통 바닥에 항상 남아있도록 급여하자.

▶ 육성기의 포인트 : 양질조사료의 충분한 급여 생후 13개월령까지는 뼈나 내장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영양소의 배합이 중요하며 내장의 발달을 위하여 조사료의 다량급여가 필요

나. 일반적인 관리

이제 한낮의 온도가 남부지방의 경우 30℃이상 올라가는 날이 많아지는 초여름이 되어 겨울동안 방풍을 위하여 우사에 설치한 비닐방풍망은 깨끗이 제거하여 오랜만에 우사 내부를 환기시키고 방충망을 설치할 때가 되었다. 또한 쌓여있던 먼지, 거미줄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의 우사를 만들어 주며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여 곤충 구제와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기록판의 제작

사실 사양관리를 위한 기록판은 사료회사별로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하고 있지만 활용하는 농가는 H단체외는 별로없다. 사료급여판을 보기와 같이 제작하여 우사에 부착하여 두면 사료급여량을 정확히 체크할 수 있어 정확한 개체관리가 가능하므로 제작하여 활용하기를 바란다.

예)

사료급여판

사료급여량			
사료명	아침	저녁	비고
육성전기	1.2 kg	1.2 kg	
벧질	2.0 kg	2.0 kg	
야초		1.5 kg	

발육상황 (측정일 2000. 4. 30)

이표번호	생일	전월체중	금월체중	증체량
1011	99. 9. 15	250	270	20
1012	99. 9. 30	245	268	25
1013	99. 10. 5	257	278	21
1014	99. 10. 3	235	258	23
1015	99. 10. 8	242	269	27
평균		246	269	23

특기사항 : 1014, 1015 락부병 치료중

라. 입식우 조사

입식조사를 4월~5월까지 계획하였으나 구제역에 따른 연기가 불가피하여 5월부터 시작하여 6월 중순이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회직원의 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입식조사시에 참여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입식이 완료되었거나 입식조사를 원하는 농가는 협회 직원에게 통지하여 주기를 바란다.

▶ 입식시 조사사항 :

- 개체확인 및 이표별도 부착
- 체위 및 체중 측정(농가에서는 우형기 준비)
- 기타 조사사항(입식시 체중, 구입가격, 혈통 등)
- 농가별 출품회비(20만원) 징수
- 송아지 건강체크

다음호는 "안정적인 밀소 확보"가 게재됩니다